

<12월에 드리는 2024년도 마지막 편지>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느 덧 금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온세계가 마음이 들뜨는 성탄의 계절이지만 아프리카 말라위는 헝거 시즌이자 고통의 계절입니다.

지금은 우기이지만 어떤 지역은 옥수수를 심어야 하는데 또 자라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고 또 남부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집들이 유실되고 부셔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100채 집짓기 새마을 운동 사역을 하고 있어 우기시즌에 비 피해를 어느 정도 방지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월 전해드렸던 선교편지를 2025년부터는 매 홀수달에 (2개월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말라위 상황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인 Area 3지역은 전기와 물이 그동안 안정적으로 들어오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물한방울이 나오지 않아서 샤워는 커녕 설거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물이 해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기가 이틀째 들어오지 않아서 냉동식품이 녹지 않을 까 발전기를 돌리려고 5리터 기름을 구입하러 갔다가 주유소 직원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왔을때의 마음은 참으로 제자신이 비참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말라위에 처음 왔을 때에 일주일동안 물도 전기도 없이 생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현지인 목사는 지금이 헝거시즌이지만 버팔로 빈 (buffalo bean) 이라고도 불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 짐승들이 먹어야 하는 야생열매나 푸른 로컬 망고를 물에 끓여서 죽으로 만들어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갈수록 현지인들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이유중의 하나가 삼고(외화부재와 오일부족, 그리고 생활물가 급등)와 날마다 화폐가치의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 현지인들조차도 강도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우리센터안에 풍성하게 열린 애플망고가 마음을 여유롭게 또 행복하게 합니다.

- 100채 집짓기 사역



센터가 있는 차파타 빌리지 10채와 분다 빌리지 10채등 20채의 집짓기 및 개량 사역을 완공하였습니다.

특히 우기 시즌에는 폭우와 벼락 등으로 집이 유실뿐만 아니라 잠자다가 죽는 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도 집상태가 좋지 않은 집들은 완공되었거나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집짓기 사역을 진행할 계획입

니다.

이 100채 집짓기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이리남중교회와 어느 할머니 권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내년부터는 필요 할때마다 주님의 감동과 은혜로 이 집짓기 사역을 진행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정 후원자 이름으로도 한 채씩 건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재정을 위해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너는 내백성을 위로하라



12월은 예수그리스도가 오신 달이고 온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한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야서 40장 1절말씀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백성을 위로하라."

어느 덧 10여년의 위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예배와 더불어 감사위로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성도가 키우고 있는 닭을 가져온 이도 있었고 또 토마토와 고구마, 가지 망고부터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를 한아름씩 가져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네 소산물의 첫 것을 감사로 드리는 것을 가르쳤고 돌아갈 때에는 온성도들이 다시 되받아가고 남은 것으로 풍성하게 점심도 먹었습니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 받는데 에만 익숙해서 감사를 드릴 줄을 모르고

또 말라위에는 감사절기가 없어 감사를 가르쳐야 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집을 지어 주어도 우물을 파주어도 옥수수를 한가마씩 나눠 주어도 감사를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감사를 할지 언정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일에도 설교시간을 통해 가르쳤지만 감사를 할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불평을 할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칫솔과 치약, 남녀 팬티 그리고 가루비누부터 여러가지 선물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현지인들에게 감사선물을 한아름씩 안겨 주었다.

저의 경우도 매일 세가지씩 감사를 900여일이 지났지만 감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입니다. 감사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 유치원 방학식



저희 센터안에는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컴퓨터스쿨과 재봉학교 그리고 제자훈련학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치원 스케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커리큘럼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18일에 유치원 방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국민의 60%이상이 어린이이므로 어린이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일에 왜 결혼을 하느냐고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나

고 물었더니 어느 교인은 섹스가 목적이라고 하여 모두가 웃었지만 단지 웃어 넘길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현지인의 결혼에 대한 의식구조가 잘못되었기에 이를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 유치원 방학식 또는 졸업식에는 이들이 학교 입학에 필요한 유니폼과 스쿨백(책가방) 그리고 인천 어느 개척교회에서 말라리아 질병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말라위의 차세대(다음세대) 리더를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식에는 모든 학부모와 함께 말라위국가를 부르고 애국심과 신앙심을 길러 내는 게 유치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센터안에 있는 컴퓨터스쿨과 어느 대학 총장님과 캐나다 후원자님의 후원으로 세워진 재봉학교도 날이 갈수록 기술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견고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 잔디심기



말라위는 건기와 우기등 두개의 계절로 나누어집니다. 건기때에는 회

오리 바람과 먼지로 눈을 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운동장을 잔디로 심어 청소년 잔디 축구장과 아울러 넷볼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맘을 먹고 온성도의 자원봉사로 잔디를 심었는데 비가 잘 내리지를 않아 심어 놓은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에 걸쳐 잔디를 다시 심었고 비가 적절히 와서 센터안의 잔디 축구장을 만들어 주어 청소년들이 뛰어 놀수 있는 푸른 마음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 헨리가족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헨리와 그의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할말이 있다고 하더니 5달난 딸아이가 말라리아로 심각하여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며칠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여 우유값을 도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유값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딸아이가 많이 좋아져서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하는데 집에 올 차비가 없다고 하여 로드릭목사님을 도와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가 아직 잘 먹지를 못해 코에 호스를 꼽아 우유를 먹고 힘을 내어 또 처음으로 승용차를 타고 오니 가족들이 너무 좋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헨리는 센터에 와서 잔디를 자발적으로 심고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죽음에서 소생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제목

- 연말연시와 헝거시즌을 맞이하여 정부와 교회와 각 단체들이 지혜와 인내로 잘 극복하고 현지인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 지금 진행되고 있는 Youth Ministry 중 학교 중도 포기자들이 학교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도록 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 진행중인 새마을 운동사역 중 100채 집짓기 및 수리사역등 말라위 새마을운동 사역과 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사륜구동 자동차로 운송과 옥수수구제를 할 수 있도록 빌리지에 갈 수 있는 손발이 되게 하옵소서
-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위해 젊은 동역자 및 협력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사, 그리고 재봉틀과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한국에서 오는 단기선교팀의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기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1. 많은 분들이 본인의 후원구좌를 요청하여 부득불 게재합니다.

Keb하나은행 303-04-00004-887 예금주: GMP민경화

2. 2025년부터는 선교편지를 2개월 단위(홀수달 기준으로)로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라위 민경화/홍희선교사드림